

본문 : 요한복음 21 장 1-14 절

제목 : 와서 아침을 먹어라

1. 회상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합니다. 뇌는 오감을 서로 연결하여 메모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시각)에 가면 예전 그곳에서 경험했던 어떤 추억이 소환됩니다. 특정 음악을 들을 때(청각), 특정한 장소에 대한 메모리가 불러 나오는 것도 모두 뇌가 하는 독특한 기능입니다. BTS 의 Dynamite 나 Butter 가 히트 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던 우리가족은 그 노래를 들으면 코로나가 생각나고 캘리포니아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감각 중 가장 기억과 깊은 연관을 맺는 것이 후각이라 합니다. 특정한 향기는 그 향기와 어우러진 장소와 추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특정한 장소와 향기와 분위기를 통해 제자들이 잊고 있던 기억을 소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흠어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벌써 예수님이 세우신 세 번째의 '제자들 다시 일으키기' 프로젝트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컸고 상심이 컸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Tres Dias"나 "Alpha Course"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스텝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장소를 꾸미고 식탁을 마련했는지 감동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감동과 은혜를 주어 그들을 다시 부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천사와 여인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셨었죠 (마 28:7, 막 16:7). 갈릴리라는 특수한 장소와 그 장소에서 숯불과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통틀녘에 제자들을 찾아 오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세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지난 3 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뇌의 한 곳에 숨겨 있던 메모리를 불러내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들을 찾아 간 것일까요?

2.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런 명칭들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를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히브리 말로 주변지역, 변방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 북단인 단이라는 곳에 혈문산이 있는데 그

설산의 눈이 녹아 내려 남쪽으로 흘러 큰 호수를 만듭니다. 이 호수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처럼 보이기도 해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게네사렛은 긴네렛이라는 히브리말을 헬라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긴네렛은 하프를 뜻하는 말인데 호수의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긴네렛이라는 히브리 말 대신 게네사렛으로 이 호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죠. 디베랴 바다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입니다. Tiberias 는 로마의 2 대 황제인 Tiberius 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계획 도시였습니다. 티베리우스는 A.D. 14-37 년까지 23 년을 통치한 로마 황제입니다. 이 시기에 헤롯 대왕 Herod the Great 의 아들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네 개로 쪼개서 다스렸는데 그들을 분봉왕(Tetrarch)이라 불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된 계획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Tiberias 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였고 약 1 만명의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전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보여주고 자신의 권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였죠. 이 도시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뜯어 내어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들에 대한 수탈이 심했습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가 아니라 배의 크기에 따라 미리 세금을 징수 했다고 합니다. 도시 건설을 위해 외화 벌이가 필요했고,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싼 값에 뜯어 내어 염장처리하고 수출하여 외화를 벌여 들었다고 합니다. 디베랴 바다의 어부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갈릴리의 어부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다른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이름을 놔두고 요한이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을 부른 이유는 그곳이 아픔의 장소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아픔과 눈물의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회상의 도구들

디베랴 바닷가가 제자들의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장소였다는 것 외에 그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디베랴에 다시 왔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스승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헛된 꿈처럼

여겨졌기에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배를 탄 것입니다. 베드로의 옛 삶으로의 복귀에 동참했던 동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외에 네 명의 제자는 이름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2 절). 특이한 것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전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했던 회의주의자입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 장에서 함께 예수를 따르자고 하는 빌립을 향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46 절)” 라고 쓴 웃음을 던진 냉소주의자였습니다. 요한이 이들 세 명의 이름만 밝힌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배신할 수 있고, 배신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회의주의자의 의심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께 차가운 웃음을 던지던 냉소주의자의 비웃음마저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장소, 소품, 장치들은 모두 그들의 회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던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누가복음 5 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과 거의 일치 합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땅에 올라왔을 때 숯불이 퍼져 있고 물고기와 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숯불은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소품들입니다. 물고기 냄새를 맡고 빵 구워진 향기, 숯불의 나무타는 냄새는 그들의 기억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있던 경비병들이 날이 추워 숯불을 피워 놓았었고, 그 숯불 주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죠(18 장 18 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숯불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불을 보는 순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고집어 낼 때에야 비로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는 자신의 아픔과 직면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다시 부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빵과 물고기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행해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했겠죠.

4. 환대의 식탁

예수님께서 이런 소품과 장치들을 통해 그들의 배신과 아픔과 직면할 수 있도록 하신 의도가 읽히긴 하지만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추궁하는 말 한 마디 없으십니다. “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실망이야~” 이런 말을 했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오히려 시원했으련만 예수님은 한 마디 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첫마디는 “애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였습니다. “애들아”는 ‘아이’라는 뜻의 헬라말 “Paidion”의 복수 호격(Vocative) 형태인 Paidia 가 쓰였습니다. 매우 친근하고 따뜻한 부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제자들이었다면 ‘애들아’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심을 알아차렸을텐데 아무도 못알아차린 채 “ 못 잡았습니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종종 도움의 방향으로 여겨지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제서야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격식을 갖추고 주님을 맞아야겠다고 겹옷을 입긴 했지만, 가득 찬 물고기 때문에 느려진 배의 속도에 그의 마음의 속도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100 미터 거리를 헤엄쳐 갑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침밥은 사랑입니다. 한국인들의 식생활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아침을 안 먹기도 하고 가볍게 먹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식사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환대의 식탁을 통해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주님은 식탁을 마련해 주셨었습니다. 환대의 식탁은 예수님이 꿈꾸시고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돈벌이도 변변찮으셔서 식탁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셨음에도 항상 중요한 가르침과 만남에는 식탁을 마련하게 하셨지요. 환대의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교회에서 먹고 마시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하지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세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 이후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 주며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 식탁을 마련해 먹이면서 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는 곳에는 환대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인사 중에 “식사는 하셨어요?”라는 인사가 매우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곳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잘 몰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린 곳과 주님이

자신을 알아보게 한 곳은 모두 식사하는 곳이었습니다. 환대의 식탁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참 진리를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이제 이곳에 살만 하신가요?" 그러면 자신들을 환대해 주고 집에 불러 식사대접 해주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 분들 덕 분에 이곳에 정 붙이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환대의 식탁이 설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 땅이 되어 준 것입니다. 환대의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잡은 생선을 가져오너라

그 따뜻한 분위기에 매료된 제자들은 서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 앞에 계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를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과 더불어 차려놓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 올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뒀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동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따를 때 그물이 터지기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죠. 예수님은 주님의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켜 주십니다. "내가 마련한 것 말고도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잡아 온 그 물고기도 함께 놓자꾸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신 겁니다. 용납 받고 구원 받은 것도 은혜인데 주님은 "나의 일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식탁은 주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얻어진 열매가 한 데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의 삶을 귀한 열매로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맺었던 인격의 열매, 관계의 열매, 물질의 열매들을 주님의 식탁에 가져와 함께 나누자고 부탁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거뒀던 열매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6. 환대,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 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신기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충격이 컸고 상심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배신하진 않았겠죠. 부활하는 것을 참으로 믿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옛 삶으로 돌아가진 않았겠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볼 때까지도 믿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주님을 떠나고 배신한 미안한 마음이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한 놈도 내게 남아 있는 놈이 없더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의 defense mechanism 이 작동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말 대신 “밥묵자!”라 말씀하시면서 조반을 준비하셨지요. “너희는 한 번도 내 식구(食口)가 아닌 적이 없고, 내 식탁에서 멀어진 적이 없어” 라는 주님의 사랑이 이 식탁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리켜 받아들여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하죠. 주님이 마련하신 조반은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예수님의 용납과 사랑의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이 가진 원래의 뜻인 재기(다시 일어섬)의 이야기를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진 그 일과 그 장소에서 매번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뵈기 부끄러워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없음에 실망하여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손 내미십니다. 환대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환대는 제자들의 부활(재기)을 도와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환대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감정에 자주 넘어지는 것들은 그것을 직면하라는 예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저와 아내는 악동뮤지션이라는 뮤지션을 좋아합니다.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인 남매로 구성된 가수들입니다. 저희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선교사 자녀인 MK 여서 더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이수현이라는 여동생이 꽤 긴 시간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체중도 늘어나고 방송활동을 중단했었죠. 그런데 이찬혁이라는 오빠가 동생의 재기를 위해 도왔다고 합니다. 동생을 위해 “햇빛 Bless You”라는 노래를 선물하기도 했죠. 오빠는 운동도 시키고 밝은 에너지를 주면서 다시 노래하고 재기할 수 있게 동생을 힘써 도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들의 이런 아픔의 경험을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노래 중 ‘소문의 낙원 Paradise of Rumor’ 이라는 노래가 참 좋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 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대 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이 노래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수현의 경험적인 고백인 것 같아 더 감동입니다. 타자를 향한 환대와 사랑은 불치병마저 치료한다는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환대야말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환대의 삶의 방식이 곳곳에 퍼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들이 여러분들의 환대와 사랑의 스프로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